

# 「韓·中 科技협력협정」 체결

## 科技共同委 구성...상호방문개최 추진

### 情報·신소재등 38개과제 공동연구실시

韓·中 양국간 과학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韓·中 과학기술 협력협정」이 9월30일 상오 北京 釣魚臺국빈각 1층회의실에서 盧泰愚대통령과 楊尙昆국가주석등 양국정상 임석하에 金鎮炫과기처장관과 宋健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부총리)간 에 서명되었다.

동협정의 체결에 따라 앞으로 韓·中 양국은 상호 호혜·평등입장에서 공동연구, 과학기술자 및 기술정보교류등을 통한 과학기술협력을 양국정부의 지원과 보장하에 확대 추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며 동협정상의 韓·中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매년 상호 방문 개최를 통해 양국간의 구체적 협력사업을 합의,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韓·中 양국은 상호 우위분야의 보완적협력과 황해연구 생명공학 동양의학 문화재분야등 상호관심분야의 공동개발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양국은 또 우리나라의 G7계획과 中國의 863고도기술개발계획중 정보·생명공학·에너지·생산자동화·신소재등 공동개발분야의 상호참여와 공동연구도 추진한다.

양국은 이밖에 기술조사단의 상호교환을 통해 양국이 이미 합의한 38개 공동연구를 조속히 착수키로 하고 이를 위해 93년중 1백명의 과학기술자를 상호 파견키로 했다.

양국장관은 또 金鎮炫과기처장관이 제안한 양국간 협력촉진을 위한 「과학기술협력센터」의 상호설치문제를 오는 11월로 예정된 宋健과학기술위원장의 訪韓시 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金장관과 宋위원장은 지난 3월 과학기술장관회담을 통해 38개 공동연구기술조사단 연내 파견등에 합의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 황해조사연수·원자력안전기술·조력발전·방사능 가속기설치 등의 협력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 기술優位 추진정책 건의

#### 產技協, R&D투자우려 수준

지난 10년동안 증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연구 개발 투자를 활성화 시켜 기술혁신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과거 60~70년대의 수출드라이브 정책에 버금가는 기술우위 전략기조가 수립되고 이의 집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특별조치법과 같은 한시적 별률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9월 21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비가 80~85년에는 연평균 40.4%씩 증가하다가 85~90년에는 22.7% 88~90년 3년 동안에는 16.9%로 크게 낮아져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기술개발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방향」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產技協은 이 건의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 수준은 기술규모지수로 볼때 미국과 일본의 10분의 1수준 남짓하다고 전제, 전반적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產技協은 미국도 92년 연구개발예산을 대폭증액, 첨단기술기업에 低利융자토록 하는 기술우월법을 제정하고 22개국 혁신기술과제를 선정해 첨단연구개발비를 25%가량 늘리는 등 정부차원에서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우리도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자원총동원체제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세제지원을 최저한 稅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한국통신등 일부 정부투자기관에서 실시하는 일정비율 연구개발투자자의무를 전체 정부투자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博士後과정 研修院」설치 검토

科技諮問委, 기술혁신 7개항 제시

## 국가경쟁력 向上...연구개발 생산성提高방안 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9월4일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제19차 회의를 개최, 국가경쟁력 향상방안, 국가연구개발 생산성제고방안, 과학기술교육제도 개선방안등 3개과제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자문위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제조업의 체질강화와 산업간 균형발전, 중소기업육성과 기업의 경영합리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개선등을 제시하고 정부가 중점 추진할 분야로 ▲기술혁신의 여건조성 ▲신기술제품의 시장확보지원 ▲기술·기능인력 확보 ▲기술개발투자 확대 ▲혁신지향적 정부체제 ▲사회효율성제고 ▲기술개발을 위한 세계화 전략등을 들었다.

과기자문위는 특히 국가경쟁력향상 방안으로 산업기술 금융지원제도가 실질적인 기업연구개발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한국산업은행을 기술금융전담기관으로 전면 개편, 기존 상업배이스의 중장기 설비금융은 제2의 민간장기신용은행으로 이관하고, 현재 중소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등이 취급하고 있는 각종 기술개발금융업무를

통합하여 한국산업은행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원자금의 조성을 위해 민간기업의 출연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과기자문위는 연구개발활동의 생산성 제고방안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본부기능의 전문성과 평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설치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박사후연구과정 연수원을 설치, 국내 고급기술인력 재교육과정의 운영을 검토했다.

또 관련제도 및 연구관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예산 및 회계제도의 개선방안, 순수연구와 기술개발로 구분하는 정부출연연구소의 기능재정립과 회원사 모집제도, 연구소와 회원사간의 인적교류방법 등도 논의되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 교육제도의 개선방안으로는 입시에서 과학적 탐구력 평가를 중요시하는 문제출제, 과학교사의 재교육, 공업계 고졸출신을 위한 산업기술대학 설립, 공무원 교육에 교양과학기술 과목의 이수강화등이 거론되었다.

이날 회의는 과제별 소위원회

회에서 전문가단이 연구검토한 내용을 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자문위는 이들 정책과제들을 계속 연구, 검토하여 최종 의결된 내용을 10월중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 국제環境 심포지움 개막

8개국참가...協議體구성 논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이후 東北亞지역에서는 최대규모로 열리는 「92서울국제환경 심포지움」이 9월2일 서울 蠶室 호텔 롯데월드에서 개막됐다.

「유엔환경개발회의와 21세기 환경질서 조망」이란 주제로 환경처 후원아래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회장 盧在植) 주관으로 4일까지 열리는 이번 심포지움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개발계획(UNDP)등 3개 국제기구와 美·日·中·러·몽골등 8개국대표 18명이 참석했다.

환경처는 이번 심포지움을 계기로 지난 6월 리우환경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제안한 東北亞환경협약체 창설을 구체화하기 위해 민간차원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오는 5일 이번 심포지움에 참석한 韓·中·日·러·몽고등 東北亞 6개국대표들을 별도로 초청,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갖는다.

# 韓 · 러 技術同盟체제 구축

## 「科學文化交流協」 신설 추진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의 과학기술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현재의 한·소 과학기술 협력센터보다 한차원 높은 한·러 과학사업교육문화교류 협회를 구성, 기술동맹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러시아 엘친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사전조사차 9월11일 내한한 니콜라이 말리세프 교육·과학·문화담당 수석보좌관은 1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현재의 한·소센터는 상호호혜적인 공동연구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새로운 협력기구를 통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공동기술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리세프보좌관은 이미 두달 전 러시아에서 과학교육부를 비롯한 과학원·산학연맹·아카데미엔지니어링협회등 4개단체가 모여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양국 정상회담시 한·러 과학사업문화교류협회 구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말리세프보좌관은 이 협회가 반관반민으로 운영, 양국의 광범위한 기술협력을 지원하게 될 것임을 전제하면서 한국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도 희망했다.

이 협회가 양국에 설치될 경

우 현재의 한·소센터는 정보교류를 위한 창구로 계속 활용될 전망이다. 말리세프보좌관은 러시아의 과학기술 각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를 한글화하여 이 센터를 통해 제공할 것임도 아울러 밝혔다.

### 과학衛星, 우리별1호

#### 우리말 放送실험 成功

8월11일 우주궤도에 진입한 후 27일째 우주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과학위성 우리별1호가 우리말 방송실험에 성공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

공위성연구센터 지상국은 『우리별1호가 지상국에서 보내준 우리말을 수신한후 이를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전해주는 우리말 음성방송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무선수신기를 가진 사람들은 4백35메가Hz에서 이 음성을 수신할 수 있으며 방송국에서 위성으로부터 받은 4백35메가Hz 음성정보를 88~1백5메가Hz로 전환시켜주면 일반인들도 라디오를 통해 우리말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지상국은 또 그동안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이던 우리별 1호의 한반도상공 통과시간이 현재 오후1시부터 다음날 새벽3시로 당겨짐에 따라 한반도 상공촬영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科總 현안문제 意見교환

### 金과기처장관, 科總회장단초청 오찬

金鎭炫과학기술처장관은 9월26일 閔寬植 명예회장, 金始中 회장대행을 비롯한 科總 회장단을 초청, 오찬을 나누며 환담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서는 10월말 着工예정인 「과학기술진흥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지원 추가가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특히 93년도 국고예산지원 확대와 학회학술활동지원금의 추가확대등 科總관련사업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등

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科技處에서 權甲澤 기획관리실장 李宗元 연구개발조정실장 陳海述 기술진흥국장이, 科總에서는 金東一 상임고문 鄭勛英 상임부회장 成樂正(한국화약그룹 부회장) 閔壽泓(인하대공대교수) 金炳源(한국화낙<주>사장) 李景瑞(국제화재해상보험사장) 金美經(이화여대가정대학장) 부회장과 鮮于良國 감사(대한치과기재학회고문) 등이 참석했다.

## 革新的 개편방안 모색

### 「과학과 기술」誌 編輯 및 운영諮問委 새로구성

#### 과학과 기술

The Science & Technology



23년 歷史의 본 연합회 발행 월간 「과학과 기술」지가 우리나라 최고령의 과학잡지로서 손색이 없는 과학기술종합전문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편집체제 및 내용을 대폭 개선, 오는 93년 신년호부터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다.

科總은 이에 따라 현재의 88쪽에서 100쪽으로 증면하고 발행부수도 대폭 늘린다는 계획 아래 本誌 편집위원회를 강화, 새로 구성했는데 편집위원장은 朴澤奎전국대이과대교수, 위원에는 金道鎭나라이동통신이사, 閔英基 경희대자연과학대교수, 白瑩鉉고려대공대교수, 李光榮한국일보부국장, 玄源福한국과학저술인협회 부회장 등을 위촉했다. 이와함께 분야별 자문을 위한 운영자문위원회도 구성, 운영키로 하고 각계 전문

가 41명을 다음과 같이 선임하여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장 : 金始中科總회장직무대행 ◇위원 : 金宗殖(서울대) 崔至薰(인하대) 金浩吉(포항공대) 權肅一(서울대) 孫蓮秀(KIST) 蔡永福(한국화학연구소) 金宅濟(KIST) 鄭用昇(한국교원대) 許亨澤(해양연구소) 朴相大(서울대) 韓文熙(유전공학센터) 金淑喜(이화여대) 朴鍾世(KIST도핑콘트롤센터) 姜麟求(금성사)

朴漢奎(연세대) 李龍兌(정보문화센터) 趙星煥(기아자동차) 洪昌善(KA-IST) 文仁炯(한양대) 金光雄(KIST) 林昌生(원자력연구소) 林岡源(서울대) 尹龍男(고려대) 盧隆熙(서울대) 鄭吉生(전국대) 朴榮浩(부산수산대) 梁左龍(의학협회) 金忠燮(제일제당<주> 중앙연구소) 朴承載(서울대) 李軫周(KAIST) 宋相庸(한림대) 崔先錄(서울신문) 李龍水(동아일보) 金明子(숙명여대) 玄健燮(재미과학협) 張甲淳(재일과학협) 文光順(재카과학협) 吳英錫(재불과학협) 徐聖基(재영과학협) 李鍾治(재독과학협) 姜貴吉(재중과학협) 박게오르기(재독립국가연합)

## 國際과학機器展 및 세미나 개최

### 美·英 등 50개국서 첨단기기 1200점 출품



▲ 제2회 한국국제과학기술기전·세미나 개막식에서 鄭助英 科總상임부회장등 관련인사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제2회 韓國국제과학기술기전 및 세미나INTERISIS '92)가 9월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한국종합전시장 본관에서 美國, 獨逸, 英國등 국내의 50여개업체가 첨단과학기술기 1,200여점을 출품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국종합전시장이 주최하고

과학기술, 科總등이 후원한 이번 전시회는 기초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 및 업계의 R & D투자확대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외 우수과학기술기를 비교 전시함으로써 신기술 및 신제품개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과학기기생산업체와 수요자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국내과학기술기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함께 대한화학회가 주관하는 「공업화학분석세미나」 및 한국과학교육학회가 주관하는 「과학교육분야 하계학술대회」가 동시에 개최되어 관련산업계와 교육계의 만남의 장도 마련됐다.

# 「遺傳子 증폭기」 國産化 성공

## 標準研, 에이즈등 조기진단 첨단기기

암이나 에이즈 및 유전병등 질병의 감염여부 또는 유전형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첨단기기인 「임상검사용 유전자 증폭기」가 국내에서 개발됐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許貴錫박사팀은 9월14일 대한메디칼시스템, 원광대 의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기존 외국제품에 비해 증폭(유전자의 수를 증식한다는 뜻) 속도가 10배 정도 빠르고 반응시약 소모량을 5분의 1로 줄인 고성능 유전자 증폭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유전자증폭기란 생명체에서 미량의 유전자를 추출한 뒤 복제를 통해 수십만배 증식시키는 기기로 증폭된 유전자의 배열순서와 변화를 관찰하면 암세포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 각 개인의 유전자의 차이, 생체내의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감염여부, 그리고 진화와 관련된 변화를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따라서 유전자 증폭기를 이용하여 병을 진단하면 감염병균의 유전자에 대한 정보로부터 병을 진단하기 때문에 기존의 진단법보다 훨씬 빨리 병의 초기단계에서 병을 진단할 수 있다.

또 80개의 시료를 동시에

증폭시킬 수 있고 컴퓨터 제어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유전자증폭기는 대당 가격이 1천여만원으로 현재 국내에는 2백여대가 있다.

이 증폭기의 국내수요가 앞으로 5년동안 2천대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 2백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 디지털技術 공동연구

#### 電子通信研-美矽컴社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최근 미국矽컴社와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의 디지털 기술공동연구를 위한 2단계계약을 체결했다.

梁承澤소장이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소재矽컴社를 방문, 어윈 자코보회장과 맺은 이 계약은 1천만달러를 들여 RTS(디지털실험시스템)의 제작송부 설치시험등 모두 8개 분야에 걸쳐 연구를 하는 것으로 연구수행기간은 9개월이다.

전자통신연구소와矽컴社는 2단계 연구의 목표를 △시스템구조 및 인터페이스의 정의 △지구국의 기본설계 △RTS의 제작송부 설치시험 △파견 연구원에 대한 훈련등으로 잡았다.

전자통신연구소와矽컴社는 91년5월부터 1단계(계약금 1백90만달러) 계약을 체결, 그동안 셀룰러시스템 구조설계에 대한 연구를 해 왔다.

### 「기초과학 컨소시엄」 설립

#### 서울大, 試案 마련

서울대 자연대는 9월 30일 기초과학연구활성화와 산업체 인력재교육을 위해 내년 3월 설립되는 「기초과학연구협력컨소시엄」시행방안을 마련, 10월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자연대는 우선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회원모집에 착수, 중신회비 1억 2천만원(또는 연회비 2천만원)을 내는 정회원 기업 10개사와 중신회비 3천만원(또는 연회비 5백만원)을 내는 준회원기업 10개사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컨소시엄에는 자연대 11개학과와 기초과학관련 14개 연구소가 공동참가하며 産學협동 차원에서 회원기업체에 기초과학분야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고 우수인력과 첨단장비를 공동으로 활용케 된다.

자연대는 또 회원기업체 연구원이나 직원에게 이 대학 학부 및 대학원과정에 개설된 과목의 수강을 허용하거나 별도의 강좌를 개설해 교육키로 하는 한편 이 대학 교수들이 회원기업체에서 실시되는 교육에 출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상

물결무늬연구 (학생)  
황칠나무연구 (일반)

제38회 전국 科學展 개막



◀ 학생부(왼쪽)와 교원 및 일반부 수상자들

제38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상금5백만원)은 교원일반부에서 1백년만에 전통黃漆의 채취법을 발견한 丁炳碩씨(42·광주과학고교사)와 金宇鍾씨(43·금호고교사)가 공동수상했으며 학생부는 「격자에 의해 생기는 물결무늬의 해석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출품한 朴柱亨군(16·대전과학고2)등 4명이 차지했다.

국무총리상(상금3백만원)은 학생부에서 「왜 돌에 구운 고구마가 더 달까」를 출품한 金守眞양(12·부산구포국교6)과 金鍾惠양(〃), 교원 및 일반부에서는 「중력에 의한 한반도 동남부일대의 지구물리학적 측지학적 연구」를 출품한 김

병환씨(41·부산과학고교사) 황인호씨(38·부산과학교육원교사)가 차지했다.

제38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격자에 의해서 생기는 물결무늬의 해석과 그 응용에 관한 연구」로 학생부에서 영예의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된 大田과학고 2학년 물리반(朴柱亨·李垠錫·韓國鉉·姜勳) 학생들은 두개 이상의 반복적 무늬가 겹칠때 물결무늬가 생기며 그 활용도 또한 매우 넓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작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물결무늬를 생성시키는 과정과 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과학적이고 착상과 전개가 우수하다는 평을 받았다.

1백년동안 맥이 끊긴 황칠

의 채취법과 대량생산법을 연구하여 교원일반부 대통령상을 차지한 丁炳碩씨와 金宇鍾씨는 3년전부터 이같은 사실을 알고 다각적인 연구를 벌여 황칠나무의 대량증식방식과 이용방법 및 구성성분등을 규명했을뿐 아니라 황칠의 우수성을 밝혀냈다.

남해안 도서지방에만 서식하는 우리나라의 특산물인 황칠은 인공도료인 니스와는 달리 나무조직 깊숙이 침투하므로 벗겨지지 않고 방부효과를 가진 향을 낼 뿐만 아니라 상업성도 뛰어나 전통공예인들은 울칠의 3~5배의 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두사람은 황칠의 대량생산방법도 발견했는데 곰팡이가 핀 황칠나무에서 채취하거나 황칠나무에 상처를 낸 다음 염산을 주기적으로 한두방울 떨어뜨리면 50배나 많이 채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전국과학전람회는 전국에서 3천2백63점이 출품, 예선을 거쳐 2백89점이 본선에 올랐으며 물리 화학 생물 공업등 6개 부문에 걸쳐 학생부와 교원 및 일반부로 구분하여 심사한 결과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2점, 특상 75점, 우수상 1백12점 장려상 98점 등 2백89점이 입선됐다. 입선작들은 16일부터 10월15일까지 大德연구단지안의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전시하며 시상식은 10월16일 열릴 예정이다.

## 「情報산업분야」基礎지식 크게 부족

KIST 정책기획본부, 기업체연구원대상 조사

산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선 연구원들은 첨단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수행에서 「기초지식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책기획본부가 최근 국내 주요기업에 근무하는 6백64명의 중견핵심연구원을 대상으로 1, 2차 설문조사를 거쳐 펴낸 「중장기 기술예측을 위한 예비조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조사는 정보산업 메커트로닉스 신소재 생명공학등 4개 분야에서 「1칩당 1백메가비트급 이상의 초LSI개발」 「세포암의 메커니즘해명」등 2백31개 첨단핵심기술의 개발시기와 개발상의 애로, 선진국과의 격차 등에 대한 설문이 주어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구원들은 전체 2백31개 과제 가운데 79.7%인 1백84개 과제에 대해 R&D 애로요인으로 관련분야 기초지식의 부족을 첫번째로 지적했다. 다음 16%(37개)의 과제에 대해 첫번째 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을 들었고 3.9%(9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인력부족, 0.4%인 단1건의 과제에 대해서만 제도상의 문제를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응답했다. 이에따라 일선연구개발

요원들에게 연구활동에 필수적인 기초과학지식과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자질향상교육이 보다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로 보면 정보산업(88.3%)과 메커트로닉스(98%) 분야 첨단기술개발과제에 대해 연구원들은 기초지식부족을 더욱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들은 신소재와 생명공학분야 과제에 대해서는 기초지식의 부족(64.2%, 61.8%)과 함께 자금요인도 비교적 높은 애로사항(34.3%,

35.3%)으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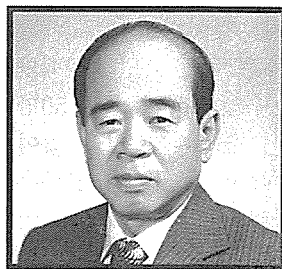
이와함께 연구원들은 우리나라 산업기술수준이 미국과 일본등 기술선진국들에 비해 5년 이상 격차가 난다고 평가했다.

4개분야 가운데 특히 생명공학분야가 가장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73.5%인 25개 과제에서 5년 이상의 차이를 들었다. 또 신소재는 5년 이상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는 과제를 70.1%인 47개를 지목했다. 메커트로닉스 분야에서는 5년 이상의 격차과제에 대해 54.7%인 29개를 꼽은 반면 정보산업분야 항목가운데는 3~5년정도의 격차를 가장 많이(51.9%) 대답해 비교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생각하고 있었다.

### 國內 1호박사 田豊鎭씨 별세

대한민국 수립후 제1호 박사 학위(이학)를 받은 학술원 회원이며 光云大 명예교수인 田豊鎭박사가 9월12일 상오2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1990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태어난 田씨는 일본 大阪 국제대학 공학부 응용화학과를 졸업한뒤 서울대 교수로 있던 지난 53년 「활엽수 펄프제조에 관한 이론과 실제」란 논문으로 국내 1호 박사학위를 받았고, 펄프합성섬유분야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겨 펄프계에서 「종이



〈故 田豊鎭 박사〉

의 아버지」로 불렸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朱載玉여사(67)와 1남3녀가 있다. 발인은 14일 상오 9시 高大안암동부속 병원에서 거행됐으며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 마석모란공원에 안장됐다.

# QFP 리드프레임 開發

## 豊山정밀, 표면실장기술로 輕量化 실현

豊山精密은 9월 21일 주문형반도체 리드프레임인QFP (Quad Flat Package) 1000PIN을 국내최초로 개발, 공급을 개시했다.

이 QFP 리드프레임은 다리가 4방향으로 나와 있고 PCB 위에 표면 室裝을 하는 방식이어서 종래의 반도체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두께와 리드의 길이가 짧아져 輕薄短小화를 이룩한 새로운 패키지로 현재 반도체시장에서 17%를 점유하는 주문형 반도체(ASIC)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금형 精度 1미크론이하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금형을 만들지 못해 그동안은 전량 수입해오다가 豊山정밀측이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것이다.

豊山측은 처음 1년간 2백만 달러의 수입대체와 1백 50만 달러의 수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ASIC의 급증추세에 따라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最高速 반도체 개발

三星전자, 10나노초

정보처리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메모리반도체 제품이 국내에서 개발됐다.

三星전자(대표 姜晋求)는 9

월29일 10나노초(1나노초는 10억분의 1초)의 정보처리 속도를 갖추고 있는 1메가 패스트 S램의 개발에 성공했다.

10나노초의 정보처리 속도가 메모리 반도체분야에서 실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초고속 1메가 S램은 속도가 빠른 바이폴러 공정과 집적도가 높은 CMOS공정을 결합한 첨단제품으로 슈퍼 컴퓨터나 미니컴퓨터를 비롯해 대용량 고성능 시스템에 폭넓게 응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64MD램 개발 성공

現代전자, 超고속·低전력제품

現代電子는 8월28일 첨단차세대 반도체인 64메가D램시제품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전자가 이번에 개발성공한 64메가D램은 2백12mm<sup>2</sup>의 칩속에 약 7천만개의 트랜지스터와 6천7백만개의 캐패시터를 집적시켜 신문 5백12페이지분량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초고집적반도체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현대전자 반도체연구소가 개발한 64메가D램은 초미세 CMOS(상보성금속산화물반도체) 가공

기술을 채택하여 동작속도 50나노秒의 초고속, 3.3V의 저전압과 저소비전력(대기시 1mA이하, 동작시 70mA이하)을 실현한 첨단제품이라는 것이다.

현대측은 이 개발품이 워크스테이션 대용량 슈퍼컴퓨터 고성능통신기기 고선명TV(HDTV) 및 항공우주분야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기억소자라고 덧붙였다.

### 6천만개 전체 셀 작동

三星전자, 신문512쪽분량 기억

三星전자(대표 姜晋求)는 직접회로의 전체셀(CELL)이 완전하게 작동하는 64메가D램시제품을 자체 개발했다고 9월25일 발표했다.

이 64메가D램은 1억4천4백만개의 트랜지스터와 캐패시터를 집적한 것으로 크기는 엄지손톱만하지만 신문지 5백12면을 메울 수 있는 알파벳 8백만자, 한글 4백만자를 기억할 수 있다.

또 이번에 개발된 64메가D램은 6천8백만개의 전체 셀이 완전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아직 선진국의 반도체 생산업체들도 개발에 성공하지 못한 것이라고 삼성전자측은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이 집적회로의 성능과 신뢰도를 향상시켜 95년부터는 상업용 샘플을 마련하는등 상용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건축학회

大韓建築學會(회장 宋鍾奭)는 지난 9월15일 학회 회의실(과학기술회관4층)에서 K.C.S Kwok교수(호주 시드니대학)를 초청해「구조설계와 풍공학」에 관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동학회의 철골구조위원회에서 주관한 이번 특별강연회에서는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과 질의응답이 있었다.

한편 동학회는 오는 10월9일 학회 회의실에서 학회의 실내디자인위원회와 건축의장위원회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朴墩緒교수(아주대)의 「유럽의 환경색채」를 비롯 韓昌平씨(대한주택공사 전적부장)의 「세르비아 국제박람회」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한국산업미생물학회

韓國産業微生物學會(회장 洪淳德)는 오는 10월30~31일 양일간 92년도 추계학술대회를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자연대

학에서 개최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발표될 논문을 모집한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초청강연과 심포지움, 일반발표로 구분하였고 일반발표는 포스터로 발표하게 된다. 심포지움은 각 분과위원회(생물공학, 생리활성물질, 환경미생물학)가 주관하는 심포지움과 일반미생물학 심포지움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심포지움과 일반발표에 제출할 논문에 관한 문의는 학회 사무실(Tel : (02)589-1537)로 하면 된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韓國建設技術研究院(원장 李潤植)은 지난 9월2~3일 양일간 동연구원(KICT)에서 제3회 한·일 건설기술 세미나를 일본의 국토개발기술연구센터(JICE)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국내의 관계자 1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魯官燮씨(KICT 도로연구실 선임연구원)의 「오르막차선 및 양보차선의 설계지침 연구」를 비롯 히모카와 스미오씨(JICE조사제2부 부참사)의 「화산활동에 의한 영향과 도로정비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하여」와 吳鉉濟씨(KICT 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의 「합성세제가 상수처리공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그리고 다나가 히라또씨(JICE연구 제2부 부참사)의 「화산분출물대의 용수구간에서의 던넬시공에 관하여」 등 10

개 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또한 동연구원은 지난 9월30일 동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건설정보화 촉진토론회」를 개최했다.

300여명이 참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李丙海교수(한양대)의 「정보시대의 건설사업」을 비롯 劉炳培국장(한국S/W산업협회)의 「건설정보 이용현황과 발전방향」 등 4개 주제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 앞서 동연구원이 그동안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 온 '건설기술정보센터'(소장 權五龍)의 현판식이 거행되었다.

## 한국학교보건학회

韓國學校保健學會(회장 鄭文植)는 지난 9월25일 도봉구에 위치한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제7회 학교보건학 국제학술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학생의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움에서는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金花中교수(서울대)의 「한국의 학교보건사업과 건강교육」을 비롯 趙定鉉씨(미국 뉴저지주 캠폰카운터 보건국장)의 「미국의 학교보건사업과 건강교육」 및 다카시 아사쿠라 교수(일본 동경대학)의 「일본 국민학교 학생의 정신적 스트레스」 등 6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 과학기술계뉴스

### 대한간호학회

大韓看護學會(회장 金照子)는 지난 9월24일 연세대학교 의료원 종합관에서 92년도 외국학자초청 학술집담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학술집담회는 「간호전문화와 생명윤리」라는 주제로 열려 앤 데이비스교수(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간호윤리의 이론적 접근」, 「간호윤리의 실제와 전망」 등 2편과 李元姬교수(연세대)의 「한국의 간호윤리 현황」 및 韓聖淑교수(가톨릭대)의 「간호실무와 윤리문제」가 각각 발표되고 질의 및 토의가 이어졌다.

### 대한교통학회

大韓交通學會(회장 林岡源)는 지난 9월29일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한국철도의 개발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철도청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국가종합교통체계계획 속에서 철도산업부문의 위상과 개발방향을 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350여명이 참가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林회장의 「철도산업의 현황·문제와 정책과제」에 관한 기초발표와 李勇宰교수(중앙대)의 「국가종합교통체계의 구축방향」을 비롯 趙重來교수(명지대)의 「철도망의

중·장기 개발계획」 및 全京秀교수(서울대)의 「기존철도의 단계별 개발 및 정비계획」 등 6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 대한화학회

大韓化學會(회장 安雲善)는 지난 9월17~19일 3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에서 공업화학분석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2회 한국국제과학기술전 부대행사로 학회의 분석화학분과회와 KOEX가 함께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金宅濟박사(KIST)의 「유기화합물의 체계적 분석」을 비롯 李桂浩교수(충남대)의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법(ICP)」 및 張正植교수(서울대)의 「분자분광법(UV-VIS/IR)」 등 10개 부문에 대한 강연과 기기실습이 있었다.

### 한국자동차공학회

韓國自動車工學會(회장 李成烈)는 지난 9월25일 아주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92년도 안전, 전기 및 전자, 생산기술 및 관리부문 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60여명이 참가한 이번 학술강연회에서는 안전부문에 朴景鎮교수(한양대) 외 3명의 「승객 거동해석의 시뮬레이션에

관하여」 등 4편과 전기 및 전자부문에 劉松旼교수(경희대)의 「차량 횡적 제어시스템」 그리고 생산기술 및 관리부문에 이재경씨(기아자동차)의 「자동차용 주조품의 응고해석 System 개발 및 적용」 등 3편이 각각 발표되었다.

한편 동학회는 오는 10월23일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92년도 재료 및 부품부문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산업계, 연구소, 학계가 참여할 이번 학술강연회에 관한 학술강연 발표와 기타 문의사항은 부문위원회 학술담당 간사(재료부문 : 이종길(순천향대 0418-42-4601, 교환539), 부품부문 : 원종길(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587-0014))에게 연락하면 된다.

### 대한금속학회

大韓金屬學會(회장 金壽植)는 지난 9월25일 포항에 위치한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서 제4회 상변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權五俊박사(산업기술연구원)의 2명의 「철강재료의 가공열처리」를 비롯 許武榮교수(고려대)의 「저탄소강판의 집합조직」 그리고 李載星교수(한양대)의 「업계확산 연구의 최근동향」 등 15편의 논문이 50여명의 관련인이 참가한 가운데 발표되었다.

## 과학기술계뉴스

### 한국작물학회

韓國作物學會(회장 李弘祐)는 지난 9월24일에서 28일까지 5일간 서울올림픽촌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창립 3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움 및 제1회 아시아 작물학회 학술발표회를 아시아작물학회협회(Asian Crop Science Association)(회장 李弘祐) 국제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아시아에 있어서 생력저비용 작물생산체계의 유지발달」이라는 주제로 열린 아시아작물학회, 학술발표회에서는 김한곤씨(농림수산부 차관)의 「아시아지역에서의 지속적 작물생산에 대한 정책적 핵심견해」에 관한 기조연설과 왕인표교수(대만 충싱대학)의 「대만의 유기농업연구현황」 등 8개 과제발표에 이어 「작물의 다수확을 위한 생리 생태 및 품종개량」 등 4개 분과에서 68편의 연구논문발표 및 3개 분과 56건의 포스타 발표가 있었다.

또한 「미래의 주요 작물생산 기술 및 전략평가」라는 주제로 열린 창립 3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움에서는 許文會교수(서울대)의 「생활이 향상된 사회의 작물요구도 변화에 대응한 작물연구」에 관한 기조연설과 와시오박사(일본 식량농업개발협회)의 「일본에 있어 벼 기계화 재배의 과거와 미래」 등 9개의 과제발표가 있었다.

한국작물회 국제학술발표회 행사 조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학술행사에는 일본, 대만,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6개국 140여명의 국외학자와 국내 관계자 360여명이 참가했다.

### 한국과학사학회

韓國科學史學會(회장 宋相庸)는 지난 9월26일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과학철학과 과학사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한국과학저술인협회, 철학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김국태교수(호서대)의 「특수상대이론적 동시성 개념의 인식론적 의미」를 비롯 이중원씨(서울시립대)의 「아인슈타인의 시공간과 유물론」 및 이종관교수(춘천교대)의 「최고위험과 위기: 현상학에서 바라본 과학의 모습」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 한국통신학회

韓國通信學會(회장 梁承澤)의 신호처리연구회와 영상통신연구회는 9월26일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제5회 신호처리합동학술대회를 한국음향학회(신호처리분과) 및 대한전자공학회(음향 및 신호처리연구회, 화상처리 및 텔레비전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4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구두논문발표와 포스터논문발표로 진행되었다. 구두논문발표에서는 金秀重교수(경북대)의 1명의 「다층 인식 알고리즘을 이용한 IPA모델의 광학적 구현」을 비롯 李商郁교수(서울대)의 1명의 「고속 IDCT알고리즘의 고정 소수점 오차해석」 및 車日煥교수(연세대)의 3명의 「선형 제한 조건을 갖는 레이더 검출기」 등 12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또한 포스터논문발표에서는 李太遠교수(고려대)의 1명의 「색압축을 위한 적응형 팔레트 설계」를 비롯 宋奎翼교수(경북대)의 1명의 「NT-SC TV신호의 2차원 적응처리에 의한 색경계 보정」 등 46편이 발표되었다.

### 대한약학회

大韓藥學會(회장 安榮根)는 지난 9월23일 제42대 회장에 鄭源根교수(서울대)를 선출했다.

鄭신임회장은 오는 10월23일 충남대학교 약대에서 있을 제42회 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내년부터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약학회 선거위원회(위원장 文昌奎)는 2백98명의 평의원을 대상으로 서신투표에 의한 개표결과 鄭源根교수가 평의원의 절대적 지지로 제42대 회장에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 과학기술계뉴스

### 과총 회원단체 10월중 학술행사 일정

단 체 명	대표자	행 사 명	일 시	장 소
한국균학회	정 봉 구	창립 20주년기념 아시아 균학심포지움	10. 1-4	서울대호암회관
한국우주과학회	친 문 석	가을학술대회	10. 2	한국과학재단
대한기계학회	박 천 경	생산 및 설계공학부문 학술강연회	10. 2	국민대
한국염색가공학회	장 병 호	추계학술논문발표회	10. 2	전남대
한국태양에너지학회	오 정 무	추계태양에너지학술발표회	10. 2	롯데월드호텔
대한한의사협회	안 학 수	전국한의학학술대회	10. 3	대구시민회관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김 건 열	12차 흉부질환학술대회	10. 4-7	쉐라톤위커킬호텔
한국고생물학회	이 하 영	동북아고생물학 국제심포지움	10.5-11	서울대호암회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 승 덕	국가표준제도 워크숍	10.6-20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대한산업의학회	차 철 환	추계학술대회	10. 7	고려대
대한위생학회	조 윤 승	국제환경보건세미나	10. 9	국립환경연구원
한국생약학회	김 태 희	국제심포지움	10. 9	신라호텔
한국응용곤충학회	최 귀 문	창립30주년기념 국제심포지움 및 추계학술연구발표회	10.9-10	서울대(수원)
대한법의학회	문 국 진	전국법의학세미나 및 학술대회	10.9-10	고려대
대한해부학회	최 월 봉	정기총회 및 한·일 학술대회	10.9-10	고려대
한국미생물학회의	민 경 희	감염성어류 바이러스에 관한 국제심포지움	10.9-11	서울대 문화관
한국의류학회	임 원 자	추계학술발표회	10.10	서울대교수회관
한국전산구조공학회	권 택 진	가을학술발표회	10.10	전남대
대한교통학회	임 강 원	정기학술발표회 및 창립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10.12-13	서울대교수회관
대한산부인과학회	오 세 량	추계학술대회 및 한일합동학술대회	10.14-17	신라호텔
대한정형외과학회	윤 승 호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0.14-17	힐튼호텔
한국잠사학회	남 중 희	추계학술연구발표회	10.15	충북대
대한생리학회	성 호 경	제44차 대한생리학술대회	10.15-16	롯데호텔
대한피부과학회	강 형 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0.15-16	그랜드호텔(제주)
한국천문학회	홍 승 수	추계학술발표회	10.16-17	경희대
한국지반공학회	김 상 규	가을학술발표회	10.16-1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어병학회	전 세 규	추계학술발표회	10.16-17	군산대
대한소아과학회	윤 종 구	추계학술대회	10.16-17	쉐라톤위커킬호텔
대한비뇨기과학회	임 수 길	추계학술대회	10.16-17	교육문화회관
대한치료방사선과학회	노 준 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0.16-17	인터콘티넨탈호텔
한국심리학회	김 중 술	연차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0.16-17	서울대교수회관
대한전자공학회	김 영 권	마이크로파 및 전파 전파연구회 학술발표회	10.17	현대전자산업(주)
한국박용기관학회	이 동 규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10.17	한국해양대

## 과학기술계뉴스

단 체 명	대표자	행 사 명	일 시	장 소
한국항해학회	민 병 언	추계학술발표회	10.17	한국해양대
한국농화학회	이 계 호	학술발표회	10.17	건국대
한국수산화학회	유 성 규	추계심포지움 및 학술발표회	10.17	군산대
한국양식학회	변 충 규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대회	10.17	군산대
한국어업기술학회	고 관 서	추계학술대회	10.17	군산대
한국육종학회	박 근 용	추계학술연구발표회	10.17	서울대(수원)
대한수학회	김 종 식	가을연구발표회 및 정기총회	10.17-18	서울대
한국유헌학회	안 명 주	제8회 유헌강사회	10.22-23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한전자공학회	김 영 권	한미합동자동차학술회의	10.22-24	한국종합전시장
한국물리학회	이 주 천	창립40주년 국제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10.22-25	서울대문화관
한국고무학회	백 봉 기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10.23	한국신발연구원(부산)
한국자동차공학회	이 성 열	재료, 부품부문 학술강연회	10.23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대한수의학회	박 응 복	추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10.23	전남대
한국광물학회	김 수 진	제5회 추계야외답사 및 학술세미나	10.23-24	현대시멘트(충북단양)
대한금속학회	김 수 식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대회	10.23-24	연세대
대한내과학회	김 교 명	추계학술대회	10.23-24	쉐라톤위커킬호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곽 동 일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0.23-24	고려대
대한약학회	안 영 근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0.23-24	충남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박 찬 일	추계학술대회	10.23-24	리베라호텔(대전)
대한건축학회	송 종 석	추계학술발표대회	10.24	강원대
대한산업공학회	배 도 선	추계학술대회	10.24	홍익대
대한전자공학회	김 영 권	회로 및 시스템연구회 학술발표회	10.24	건국대
대한토목학회	정 연 세	학술발표회	10.24	경북대
한국식물병리학회	조 중 택	추계학술발표회	10.24	대구대
한국원예학회	김 정 호	추계학술발표회	10.24	목포대
한국폐기물학회	김 수 생	제8회 폐기물재활용 및 관리기술에 관한 환경기술국제심포지움	10.29-30	한국콘도(해운대)
대한용접학회	엄 기 원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대회	10.29-31	한국종합전시장
대한방사선의학회	최 기 철	추계학술대회	10.29-31	롯데월드호텔
대한예방의학회	최 삼 섭	추계학술대회	10.29-31	하얏트호텔(제주)
한국염색가공학회	장 병 호	염색가공기술세미나	10.30	반월염색공단
한국가금학회	박 근 식	추계심포지움	10.30	가축위생연구소
한국해양공학회	한 건 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0.30-31	해군사관학교
한국생물과학협회의	강 영 희	추계학술발표회	10.30-31	순천대
한국대기보전학회의	이 용 근	제15회 대기보전 및 학회간공동학술대회	10.30-31	전남대
대한가정학회	김 미 경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10.31	이화여대
대한정밀공학회	남 궁 석	추계학술대회	10.31	연세대
한국원자력학회	윤 용 구	제25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10.31	한국원자력연구소(서울)

## 과학기술계뉴스

### 한국과학교육학회

韓國科學教育學會(회장 韓鍾河)는 지난 9월18~19일 양일간 한국종합전시장(KOEX) 대회의실에서 92년도 과학교육분야 하계공동세미나를 관련 4개 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한국물리학회, 대한화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지구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과학교육이라는 공통주제로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를 가졌다.

300여명이 참가한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세미나에서는 金基衡박사(前과학기술처 장관)의 「21세기 전망과 과제」에 관한 기조강연과 金範基교수(한국교원대)의 「실험중심 교육의 중요성과 시설」 등 3편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또한 학술논문발표회에서는 분야별(교육과정 및 교과서/사교력 및 교수 학습/과학-기술-사회), 분과별(화학교육/물리교육)로 나누어 진행됐다. 분야별 발표에서는 이규석씨(교육부)의 「교육과정의 개발이론과 개발 모형」을 비롯 최혜영씨(이화여대)와 2명의 「용해도에 관한 중학교 학생들의 개념변화 연구」 등 18편의 논문과 SATIS 프로그램 소개와 워크숍이 있었으며,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보람과학놀이마당 시범이 있었다. 또한 분과별 발표에서는 김도욱씨(서울대)의 「Salter's Chemistry 분석」을 비롯 박

중원교수(전남대)의 「물리 선개념과 증거평가 연구」 등 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신나는 과학실험을 하려면」이란 제목으로 과학실험 사례발표도 있었다.

### 대한인간공학회

大韓人間工學會(회장 李舜堯)는 지난 9월25일 공군사관학교에서 92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70여명이 참가한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3개 분과로 나눠, 국방과학응용분과에서 尹龍鉉교수(공군사관학교)의 「인간/기계 형상의 컴퓨터 표현기법」 등 5편, 산업디자인 및 생체역학분과에서 조암교수(동국대)의 1명의 「시각장애자를 위한 공중전화기의 에르고노믹 디자인」 등 6편, 인간공학 일반분과에서 孫一文교수(동아대)와 2명의 「검사작업에서의 인지기술과 인간수행도 분석에 관한 연구」 등 6편이 각각 발표되었다. 또한 공군사관학교 인간공학실험실을 견학하는 기회도 가졌다.

### 한국지구과학회

韓國地球科學會(회장 柳煥瑒)는 지난 9월18~19일 양일간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92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차기 신입회장에 경북대 지구과학교육과 梁承榮교수를 선출했는데 차기회장은 내년 9월부터 2년간의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120여명이 참가한 학술발표회에서는 金燦鐘교수(국립교육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제5차 실험평가에서 지구과학분야에 대한 탐구영역의 문항분석」을 비롯 崔勝彦교수(서울대)의 「3차원 유체역학 컴퓨터 코드를 이용한 항성제트의 역학적 구조 및 수축화과정」 및 禹榮均교수(공주대)의 「유구활석 광상의 기원암과 활석화 작용」 등 28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 한국염색가공학회

韓國染色加工學會(회장 張炳浩)는 오는 10월2일 전남대학교에서 92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임시총회를 겸한 이번 학술논문발표회에서는 金公朱교수(전북대)의 「염색의 물성」에 관한 특별강연과 신윤숙교수(전남대)의 「DP 면직물의 방오성 증진을 위한 Chitosan의 이용(II)」를 비롯 徐恩德교수(경남대)와 2명의 「플라즈마 처리에 의한 폴리에스테르 섬유의 개질」 및 朴秀敏교수(부산대)와 3명의 「유색폐수처리를 위한 고분자 흡착제의 개발과 처리수의 재사용」 등 9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 과학기술계뉴스

### 한국경영과학회

韓國經營科學會(회장 郭秀一)는 지난 9월26일 서울대학교에서 92년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주관한 이번 추계학술대회에는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朴尙奎회장(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중소기업경영의 합리화」에 관한 특별강연과 李在伉교수(서강대)의 1명의 「한국형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를 비롯 朴淳達교수(서울대)의 2명의 「2단계 다품종 수송시스템에서 영업소 재고 최소화」 및 白斗權교수(고려대)의 2명의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학교 안내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 등 52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 한국체육학회

韓國體育學會(회장 李康平)는 지난 9월3~5일 3일간 올림픽회관에서 92국제스포츠세미나를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 4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했다.

「21세기 체육학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국내의 관계자 6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는 21세기 체육학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체육학계가 지향해 나아가 할 길을 찾고 서울올림픽

성공적 개최의 의미를 보다 널리 우리 사회에 인식시켜 국민적 긍지와 자존의 기틀을 심고자하는 목표로 마련되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6개국이 참가한 이번 세미나는 6개 분과 12분야로 나뉘어 열려 체육철학분야 李鎭洙교수(한양대)의 「한국 고유의 체육사상에 관한 연구-용비어천가를 중심으로-」를 비롯 스포츠심리학분야 글린 로버트교수(미국 일리노이대학)의 「아동스포츠: 부모의 목표와 동기」 및 가다오가 준교교수(일본 여자체육대학)의 「필드워크의 관점에서 본 일본 노인들의 행동패턴에 관한 조사연구」 등 75편의 논문발표가 있었다.

### 한국윤활학회

韓國潤滑學會(회장 安明柱)는 오는 10월22~23일 양일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관 제4회의실에서 제8회 윤활강습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윤활강습회에서는 李仲鏞소장((주)한국하우톤 연구소)의 「수용성 절삭유」를 비롯 文尤植실장((주)유공 울산연구소)의 「내연기관용 윤활유」 및 金靑均교수(홍익대)의 「엔진개발에서 TRIBOLOGY 역할」 등 6개 분야에 관한 강연이 있게 된다.

이 윤활강습회는 회원제위를 비롯하여 생산업체 담당자 및 관련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 대한기계학회

大韓機械學會(회장 朴天鄉)는 지난 9월4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 학술허연회를 개최했다.

학회의 에너지 및 동력공학부(위원장 趙慶國)이 주관한 이번 학술허연회에서는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鄭勇교수(연세대)의 「에너지 수급에 따른 대기오염과 그 관리대책」을 비롯 趙康來소장(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의 「자동차 연비와 환경오염」과 崔根珉교수(KAIST)의 「기후 변화 협약」 등 에너지수급과 환경오염 및 방지대책에 관한 관련분야 전문가 6명의 강연이 있었다.

한편 동학회는 지난 9월23~25일 3일간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본원에서 피로 및 파괴역학을 고려한 강도설계 기술강습회를 개최했다.

학회의 재료 및 파괴부문(위원장 崔鎔滉)에서 주관한 이번 강습회는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金永鎭교수(성균관대)의 「파괴역학의 기초이론」을 비롯 宋達鎬박사(한국기계연구소)의 「변동하중을 고려한 피로 강도설계」 및 權寧珏박사(산업과학기술연구소)의 「응력부식 및 환경파괴를 고려한 강도설계」 등 8편의 강연이 있었다.